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지키다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돕는다

무주군, 고용주 대상 인권·노동 교육 실시

무주군은 14일 예채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앞서, 무주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준수를 강화하고 고용주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4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시간에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용주의 법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이외 능형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는



무주군은 14일 예채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동'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노동사가 '농업 분야 노동 교육'을 맡아 농업 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과 임금 체계, 근로 시간 관리, 인권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의무 이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노동 준수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세심히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2억3,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21명이 372개 농가에 배치돼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사업비 4억여 원을 들여 농촌인력증개센터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노동력 제공과 알선, 교통비 및 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인력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초기에 필요한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농협 자금을 활용한 융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및 저장시설 조성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 가능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자로 영농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장수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

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주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농협·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최후심 장수군수는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장수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호우'

진안군은 지난 1월 12일부터 진안군 11개 읍·면 9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동의 어려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 수칙 △두뇌



자극을 위한 인지활동 △신체활동을 결합한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치매는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규칙적인 인지 자극과 신체활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 할 경우 발병 위험을 낮추고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반복적이고 꾸준한 예방교육을 받을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6년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14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농민마당 등지에서 진행된다.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2026년 무주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14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농민마당 등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총 9회 일정으로 추진되며, 무주농업 발전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개 분야 8개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농 정보를 제공한다.

공통 과정은 14일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수박' 교육을 시작으로, 26일 농민의 집에서 '사과', 27일 농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블루베리' 작목을 주제로 한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읍·면별 맞춤 교육도 병행된다. 22일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과' 교육이 열리며, 29일 무주읍 농민의 집에서는 '복숭아', 30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도' 교육이 실시된다.

이외 2월 3일 부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추', 4일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천마', 5일 직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분자' 등 주요 과수·특용작물에 대한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사과 교육 과정에는 '화상병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장수군은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026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동안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자율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하면 된다.

장수군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이장단



협의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캠페인 취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를 2월 말까지 모집한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스마트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혈압, 혈당 관리, 신체활동 실천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군은 참여자에 대해 신장, 체중, 혈압 등 사전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군, 전 약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오늘건강'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매일 운동하기, 혈압 및 혈당 측정하기, 제때 약 먹기, 물 마시기 등 건강 임무를 부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앱을 통한 과제 실천을 유도하고 목표 달성 시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가 건강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전화(063-430-8549) 접수하거나 보건소 어르신 헬스케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현혈 캠페인으로 따뜻한 생명 나눔 실천

장수군은 지난 13일 군청 광장에서 실시한 현혈 캠페인에 총 42명이 참여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이동현혈차량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장수군은 연 5회 현혈 캠페인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현혈 참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